

1.종교다원주의 배경
1.동성애 반대
1.차별금지법 반대
1.자유민주주의 수호

제1118호
3월 30일
2019년
토요일

牧羊新聞

총회 상회비 계좌번호 안내

■ 국민은행

061701-04-176877

■ 예금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농협

301-0153-7296-01

■ 문의

02)2675-5181~3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 서울 다-07857 주간

www.mokyangnews.com(목양신문 지면보기 : www.aogk.org) 이메일 : mok2677@naver.com

전화 : 02)2677-9935~7 FAX : 0504)027-0897

제67차 총회 제5회 실행위원회

핵폐기, 북한 기독교인 탄압 중단 촉구!

제 68차 정기총회 준비 만전...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



의장
임용재 목사
총회장

교단 총회(총회장 임용재 목사) 제67차 총회 제5회 실행위원회가 지난 3월 25일(월) 오후 1시 총회본부에서 열려 국가인권정책 독소조항에 반대하며 북한의 기독교인 탄압에 대한 중단을 촉구하고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흔들림이 없도록 핵무기 폐기를 통한 한반도평화정착을 위해 한 마음 되어 기도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교단 총무 신재영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제주지방회장 김건수 목사의 대표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총회장 임용재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임 목사는 마 10:1-20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오랜 기간동안 묵화지역을 감당해 오면서 깊이 느끼는 것은 항상 분재는 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 힘과 내 뜻대로 하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내어 맡기고 행하려고 다짐하곤 한다”며 “우리 모든 묵화지역자는 성령님께서 인도해달라고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며 전진하게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교단 증경총회장 김용덕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곧바로 회의에 들어갔다.

의장 임용재 목사 주재로 열린 회의는 교단 증경총회장 최광덕 목사의 개회기도 후 서기 이경진 목사의 회원점명, 총회장 임용재 목사의 개회선언 후 보고 사항이 이어졌다.

보고사항에서 교단업무보고사항으로 부흥사회 사무예배 개최, 2019년 목사고시, 2019년 일본지방회 정기지방회, 제1회 선거관리위원회 모임, 2019년 총회신학교, 총회목대원 개강예배, 2019학년도 예하성 사비신학연구원 개강, 제28차 필리핀지



개회기도
최광덕 목사
증경총회장



폐회기도
이정재 목사
증경총회장



축도
김용덕 목사
증경총회장



사회
신재영 목사
총무



대표기도
김건수 목사
제주지방회장



교단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는 지난 2월 웨스트민스터신대원에서 교육학박사학위를 취득한 증경총회장 김용덕 목사에게 축하패를 증정했다.

방회 정기지방회 개최 등의 내용들이 보고되었다.

이어 재무 이은승 목사의 수입보고, 회계 조병희 목사의 지출보고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결의 및 안

건의의 사항으로 교회가입 청원, 교역자 가입 청원, 전도사임명 청원, 교회 주소변경 보고, 교회전출입 청원, 교역자 전출입 청원, 교회 명칭변경 보고, 선교사 가입 청원, 교역자가입 청원, 교역자 은퇴 보고, 교회폐쇄 청원, 교역자 소천 보고 내용 등이 결의되었다.

기타사항으로 오는 5월 20일 개최되는 68차 정기총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으며, 제2회 선거관리위원회 모임, 전국교역자국 총계단합기도회 등 각종 행사 개최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실행위원회에서는 웨스트민스터신대원에서 교육학박사학위를 취득한 증경총회장 김용덕 목사에게 축하패를 증정했으며 증경총회장 이정재 목사의 폐회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WCC·WEA는 정통기독교회를 허무는 최대의 적

가톨릭과 짝사랑에 빠진 한국교회 지도자들 대오각성 촉구

정통기독교회를 지키기 위한 WCC·WEA 반대성회가 지난 3월 23일(토) 오후 1시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열려 로마의 종교와 짝사랑에 빠져 눈이 먼 한국교회 일부 지도자들이 대오각성하고 한국교회가 바른 복음전파의 새로운 터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회개와 변화를 촉구했다.

WCC·WEA 반대운동연대 주최, 예정합동 부흥사회 후원으로 열린 이번 반대성회는 갑자기 추워지고 눈, 비, 우박이 섞인 비바람이 몰아치는 최악의 날씨 가운데 우비를 입고 참석 한 성도들은 조금의 동요도 없이 홀리씨즈교회 찬양팀과 뜨거운 찬양으로 함께 하며 성회 내내 오직 바른 복음전파를 외쳤다.

곧바로 이어진 예배는 예정합동 부흥사회 대표회장 리성열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한창호 목사(예정합동 부흥사회 홍보부장)의 대표기도, 박준호 목사(서기)의 성경봉독, 곧TV예배합창단의 특송, 예정합

동부흥사회 상임회장 서대현 목사의 설교 증경총회장 유연동 목사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서 목사는 요 16:7-11 말씀을 본문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죄’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도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을 믿고 전파하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될 것”을 당부하고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동 연대 대표 송춘길 목사는 이날 참석자들을 향해 정통 기독교회의 정체성이 무너지 가는 한국교회의 처참한 현실을 전했다. 송 목사는 “정통교회는 오직 성경만을 토대로 그 말씀 위에 정확한 기준을 세우고, 오직 성경에서 제시하는 길을 따라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면서 “지금의 한국교회는 어찌구무에 이르는 전혀 반대편의 정체성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예정합동측과 NCC는 더 이상 정통 기독교회의 일원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통 신학을 수호해야 할 예정합동측이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송 목사는 또 “종교다원주의, 포용주의, 인본주의에 매몰되어 가는 한국교회의 상황은 실로 심각하기 그지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통합측과 NCC 등을 향해 △WCC 회원 탈퇴 △WCC 부산총회 유치에 대한 사과 △전주교구와 신양과 직제 일치 파기 선언 등을 요구했으며, 한기총을 향해서도 “WEA를 즉각 탈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회의 마지막 순서로 이은진 목사(큰부리교회)의 결의분봉독, 강주성 목사(WCC·WEA 반대운동연대 대내외협력위원장)의 구호제창, 위대환 목사(합동부흥사회 사무총장)의 마침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치고 WCC·WEA의 종교다원주의, 인본주의 사상의 교회 침투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 안에 굳게 세워져 정통 기독교회를 지켜나갈 것 을 다짐했다.



‘변경할 수 없는 중대한 원칙’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안에 함께 쓰느니라” (골 1:13~17)



조용목 목사

자연법칙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자연법칙에도 말미암고 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은 만물의 존재 원인과 목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본문에 그 원칙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라고 하였습니다. 이 원칙을 모든 인생들이 알고 자신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본문에 계시된 두 가지 대원칙을 살펴 보겠습니다.

첫째 원칙은, 그리스도도 말미암는 생활입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창조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의하여 천지 만물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다”(골 1:14) 하였으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세주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도 말미암는 생활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영적인 상태는 비참합니다. 불의하고 부정하며,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지배아래 있고, 마침내 지옥 형벌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재물과 지위와 명예를 가졌다고 해도 사실은 그 모든 것이 허무하게 되는 날이 곧 다가옵니다. 이러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됩니다. 영적으로 지극히 부유하게 됩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사람이 생존해 나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기도 하고 또 쉽게 깨어지고 세월이 흐름에 따라 퇴색되어 버리기도 합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사랑, 한없이 깊고 넓고 높은 사랑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자신을 온통 맡기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인생을 밝

고 긍정적인 자세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철학과 사상은 세월이 흘러가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 변화하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맡아 주관하여 주십니다.

둘째 원칙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본문에 “만물이 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은 창조의 근본 원리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주님을 예배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이 우선적인 행동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핵심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일 때 참된 가치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둘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파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소식은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으며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믿는 사람은 죄를 사함 받고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됩니다. 예수님은 먼저 믿는 자들의 입을 통하여 이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 전도를 잘하려면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먼저 영혼 구원을 위한 불타는 소원이 있어야 하고, 다음은 간절하고 지속적인 기도가 있어야 하며, 그리고 헌신과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알고 그 원칙을 적용하는 사람은 지혜롭고 복된 사람입니다.

(은혜와진리교회)

67-5차 실행위, 68차 정기총회 준비 만전

제67차 총회 제11회 임원회

교단 총회(총회장 임용재 목사) 제67차 총회 제11회 임원회가 지난 3월 18일(월) 낮 12시 기장순복음교회(담임 조병희 목사)에서 열려 여전히 한국교회를 잠식하고 있는 종교다원주의의 물결을 물리내고 동성애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 자유민주주의수호를 위해 한 마음 되어 기도하고 각종 회무를 처리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서기 이경진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총무 신재영 목사의 기도, 재무 이은승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 목사는 이날 창 16:13-16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른 복음을 전하는 총회와 사역자들을 책임져주시길”이라고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다.

총회장 임용재 목사의 축도 후 곧바로 의장 임용재 목사 주재로 열린 회의는 서기 이경진 목사의 회원점명,

의장 임용재 목사의 개회선언 후 총무보고사항이 이어졌다.

총무 신재영 목사는 총무보고를 통해 2019년 목사고시, 2019년 일본지방회 정기지방회, 제1회 선거관리위원회 모임, 2019년 총회신학교, 총회목대원 개강예배, 2019학년도 예하성 사비신학연구원 개강, 제28차 필리핀지방회 정기지방회 개최 등의 내용들이 보고되었다.

이어 재무 이은승 목사의 수입보고, 회계 조병희 목사의 지출보고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결의 및 안건의 사항으로 교회가입 청원, 교역자 가입 청원, 전도사임명 청원, 교회 주소변경 보고, 교회전출입 청원, 교역자 전출입 청원, 교회 명칭변경 보고, 선교사 가입 청원, 교역자가입 청원, 교역자 은퇴 보고, 교회폐쇄 청원, 교역자 소천 보고 내용 등이 결의되었다.

기타사항으로 오는 5월 20일 개최되는 68차 정기총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으며, 제2회 선거관리위원회 모임, 전국교역자국 총계단합기도회, 67차 총회 제5회 실행위원회 준비 등 각종 행사 개최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한기총 내방

정치와 경제, 한미동맹 등에 관한 의견들을 개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지난 3월 20일(수) 오후 4시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를 내방하여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사와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자유한국당 이한승 의원, 전희경 의원과 한기총 중경대표회장 지덕 목사, 김지연 목사, 이용규 목사, 엄신형 목사 등이 배석했다.

대표회장 전광훈牧사는 “일부 언론이나 학자, 사회단체에서 이라다가는 나라가 해체될지도 모르겠다는 말이 서슴없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위기적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세우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잇는 지도자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한국교회는 135년 전에 이 땅에 들어와서 민족을 개화시키고, 독립운동, 건국, 6.25, 새마을운동, 민주화 등에는 교회가 중심에 있었다. 이러한 대한민국이 해체에 직면해 있다는 말을 들을 때 교계 지도자들은 마음속에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 말씀들을 들겠다. 반영된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고,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번영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했다.

배석한 이용규牧사는 “교계는 나라를 걱정하고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나 정부의 요직에 있는 사람 중에 기독교를 혐오집단이라고

표현했다고 하는 유튜브 영상을 본 적이 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안보 불안을 해결하고, 동성애 및 차별금지법을 막아 달라. 이슬람 대적, 종교인 과세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지방선거와 총선에 대해서도 말하며, 정치와 경제, 한미동맹 등에 관한 의견들을 개진했다.

“한기총과의 통합문제 서두르지 않겠다”

한교연, “통추위를 통한 대화는 이어가겠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은 지난 3월 12일 오전 11시 한교연 대표회장실에서 제8-3차 임원회를 열고 한기총과의 통합 문제를 비롯한 제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임원회는 당초 한기총과의 통합을 위한 법적 절차를 논의하기 위해 열렸으나 최근 한기총이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된 인사를 받아들이는 문제를 놓고 장시간 논의한 끝에 일단 통추위를 통한 대화는 이어나가되 서둘러 추진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는 임원회 모두 발언을 통해 “전광훈 목사님과 만나 통합을 합의하게 된 것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어 나가야 할 중대한 사명을 놓고 더 이상 미루거나 늦출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이단분쟁은 연합기관 마음대로 규정하거나 해제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통합 후에 한국교회 공 교단들

로 하여금 재심의토록 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갔어야 했는데 아쉬움을 토로하고 “한기총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큰 틀 안에서 통합을 위한 대화는 계속 이어가더라도 서두르지

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임원회는 또 한기총과 공동으로 추진하려 했던 부활절연합 새벽예배도 군포제 일교회에서 드리기로 하고, 최종 결정은 대표회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사)한기보협, 3.1운동 100주년 감사예배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대표회장 한홍교 목사 이하/한기보협)는 ‘기도로 나라를 바로 세우자’는 주제로 지난 3월 1일(금) 오전 11시 독립기념관 홍보실에서 3.1절 기념 감사예배 및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했다.

서기 박승주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1부 예배는 교수 박형철 목사의 기도, 성경봉독

에 김주향 목사(문화예술위원), 문화예술위원회의 특별찬송, 대표회장 한홍교 목사의 1:1-5절 본문으로 한 ‘나라사랑’이란 제 목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한 대표회장은 메시지를 통해 “매봉산의 유래를 설명하고 이곳에서 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가 3.1절 100주년을 기념하여 예배에는 교수 박형철 목사의 기도, 성경봉독

하심에 있었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16세의 꽃다운 소녀 유관순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내놓았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다면서 감옥에 투옥된 지 1년 만에 또 다시 만세운동을 전개했으며 결국 순교함으로써 하나님의 품에 잡혔다”고 했다. 이어 나라와 민족, 본 협회와 임원, 각 교단장과 기관, 섬기는 교회 등을 위하여 합심기도를 한 후 임석수 목사(오순절 성회)의 봉헌기도, 공동회장 진광열 목사의 격려사, 대표회장의 인사말씀, 시무총장 김준희 목사의 광고, 예정(합동보수) 총회장 이우식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는 신한철 목사(삼일회장)의 사회로 애국가 봉창과 3.1 독립선언문낭독, 3.1절 노래 제창과 공동회장 김주상 목사의 만세삼창을 끝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한장총, 캄보디아 시엠립지역 선교활동 전개

민족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송태섭 목사)에서는 선교정책협의회(위원장 박요한 목사) 주관으로 2019년 3월17일부터 5일간 캄보디아 시엠립지역의 반테스트라이 화재민 마을, 빈민촌의 프노스독교회, 슈어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전도활동을 전개하였다.

한장총 방문단 14명은 집회에서 수백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령이 목사 사회, 유포와 목사 기도 그리고 박요한 목사 설교를 통하여 많은 결신자를 얻었다.

이날 박요한 목사는 설교를 통하여 민족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라는 복음을 전하였다. 이 예배에서 임마누



엘찬양선교단(단장 윤희순 목사외 12명)이 울동찬양으로 은혜를 더하였고, 박근주 목사, 박승장 장로, 그리고 양삼태 목사가 특별 기도를 하였다.

슈어초등학교(교장 귀어)를 방문하여 지원금 일금 일천만원원을 전달하였으며 이 후 원에 예정함동해의총회, 임마누엘찬양선교단에서 참여를 하였다.

“통합의 핵심은 7.7정관으로 돌아가는 것”

한기총 통추위, “통합 해결 위해 계속 만나겠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이하 한기총)는 지난 3월 18일(월) 오전 11시 30분 롯데호텔 라세느 회의실에서 제 30-4차 임원회를 열고 주요 안건들을 처리했다.

회의는 회원점명, 개회선언, 전회의록 채택, 경과 및 사업보고와 안건토의 순으로 이

어졌다.

통합의 건에 대해서 통합추진특별위원장 엄신형 목사는 “통합에 대해서는 급진전되다가 한교연에서 조금 시한을 두자 해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 될 수 있는 대로 총회 날짜 정해진 그 안에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만나고 있다”고 말했다.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는 “통합에 관해서 엄신형 위원장이 많은 수고를 하고 있다. 이름과 함께 정관도 ‘한기총’ 것을 쓰는데, 그 안에 4개 조항에 대해서 협상 중에 있다. 통합의 핵심은 대표회장 선발에 대한 7.7 정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4월 2일에 실행위원회와 임시총회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사회위원장 김경직 목사는 정부예산을 들여서 4대강 보를 철거한다고 하는데, 한기총에서 이것을 반대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했고,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는 “농민들의 약 80-90%가 4대강 철거 반대 운동에 들어갔다. 저는 4대강 보를 생명보라고 명명하고 싶다. 이런 이슈에 대해서 한기총이 앞장 서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발언이라 여겨진다.”고 했다.



2019 전국 대신인 기도회 개최

총회원 한자리에 모여 교단과 나라 위해 무릎 꿇고 기도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총회장 안태준 목사) 주최하고 부흥사회와 전국장로회연합회가 주관한 사해 국가와 국민, 한국교회와 교단의 안변과 부흥을 기원하는 ‘2019년 전국 대신인 기도회’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주제로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소제 소망교회(담임 이정현 목사)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동 교단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 제1부 예배는 황형식 목사(부총회장)의 인도로, 이장일 장로(부총회장의 기도)와 정경인 목사의 성경봉독(마 9:14-26)

에 이어 안태준 목사(총회장)가 기쁨의 나라를 바라보며 금식하며 기도 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다.

안 목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다.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고, 기도로 화개하며, 기도로 무릎 꿇는 것이 우리의 도리다”면서 “우리의 기도가 새 생명을 움트게 하고, 악을 쳐벌하며,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찬란히 솟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 나라와 국민들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할 때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국민들의 삶에 복음의 축복이 함께 한다”면서 “기도하는 교단,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어 한국교회의 본이 되자”고 강조했다.

세션협, 필리핀 단기선교 및 유치원 방문

동남학원 학생들과 예배, 원주민교회에서 전 주민 참석 부흥회 개최

세계선교협의회(총무 전순임 목사, 이하 세션협) 임원진을 중심으로 한 제22차 필리핀 단기선교단은 필리핀 오리엔탈민도로 만살라이에 위치한 하일리 유치원(원장 유영란)과 아나폴라 초등학교(교장 권은숙 목사), 하이스쿨, 시니어스쿨(교장 김경분 목사)을 방문하여 전교생들과 예배를 드리고 유치원 2018학년도 졸업식을 거행했다.

필리핀의 국토는 7,000여 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섬은 이름 없는 암초이거나 산호초이고, 사람이 정착하고 있는 섬은 880여 개 정도이다.

그 가운데 루손섬(島)과 민다나오섬(島)이 가장 크고, 그 밖의 주요 섬으로는 앙데스 사이에 있는 비시얀 제도의 7개섬(사마르, 파나이, 레테데, 세부, 보홀, 마스비테, 네그로스) 및 민도로, 팔라완 섬이 있다.



필리핀의 최고봉인 이포산(2,954m)을 비롯하여 마요, 탈 등 여러 개의 화산을 가진 산지와 미국의 2배가 넘는 복잡한 해안선을 특징으로 한다. 특히 환태평양 화산대와 환태평양 지진대가 지나고 있기 때문에 화산이 많고 지진이 잦다.

필리핀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 해안지대에는 곳곳에 산호초가 발달해 있어, 관광 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다. 태평양의 필리핀 해구(海溝)는 세계에서 가장 깊은 해연(海溝)의 하나인 케이프존슨과 얀텐 해연이 있다.

한국교회법학회 제33회 학술세미나

‘종교의 자유와 기독교’라는 주제로

(사)한국교회법학회(대표회장 이정익 목사)는 지난 3월 19일 오전11시 서울시청 앞 프레스센터에서 제33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종교의 자유와 기독교’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서한제 교수와 윤선필 교수가 강사로 나와 각각 ‘종교와 자유와 국가사법관’, ‘종교적 병역거부와 기독교’라는 제목을 놓고 강의를 했다.

이시장 소강석 목사는 세미나의 주제선정

에 대해 “대한민국은 건국초기부터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보보리를 선언하고 기독교를 존중함으로써 전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종교자유국가 되었다”고 말하고,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는 인권과 종교자유주의를 앞세운 정부의 노골적인 반기독교정책에 직면해 흔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 목사는 계속해서 “사법부도 과거에는 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분쟁에 대한 개입을 자제하여 왔지만 최근에는 ‘정의 관념에 반

하는 중대한 잘못’이라는 애매모호한 잣대를 내세워 교회의 결정을 뒤집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종교자유에 대한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원은 “일마 전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합법이라고 판결함으로써 병역의무는 교인들이 수행해야 할 신성한 의무로 가르치고 실천해온 기독교인들과 대다수 국민들이 비양심적인 사람들로 비쳐지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덧붙였다.

동경 우에노임마누엘교회 창립예배 및 담임 백섭 선교사 취임

임종달 목사,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일본 복음화 헌신 당부



설교
임종달 목사
교단 증경총회장

교단증경총회장 임종달 목사(총회신학원장, 전주은혜외전교회)는 지난 3월 셋째 주간 동경 우에노임마누엘교회(담임 백섭 선교사) 창립예배 및 담임 취임예배를 인도하고 귀국했다.

우상과 사신의 나라 일본에서 매우 열악한 환경이지만, 교단 산하 일본지방회 회원들이 일본지역 복음화를 위해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금번 동경 우에노임마누엘교회가 창립예배를 드리고 일본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께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증경총회장 임종달牧사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본지방회 회원들과 새롭게 창립하는 교회와 선교사를 격려하기 위해 바쁜 중에도 먼 거리를 마다않고 달려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돌아왔다.

임 목사는 대하 7:15-16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전'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교회는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확립하

고 유일한 구원관이 세워져야 한다"고 전하고 "오직 예수 중심으로 WCC, 종교다원주의

와 이단이 판치고 있는 시대에 말씀과 기도로 이겨 나가는 교회로 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임 목사는 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다운 교회로 굳건히 서

길 바란다"고 전하고 일본지방회 회원들과 창립된 우에노임마누엘교회 백섭 선교사를 축복했다. 백섭 선교사는 우에노공원에서 식사봉사를 비롯 다양한 방법으로 노숙자들을 섬기고 있다.



취임선서를 하는 백섭 선교사



우에노공원에서 노숙자들을 섬기는 백섭 선교사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역자

대구경북지방회

대구경북지방회 회장 김영준 목사는 지난 3월 21일 오전 11시 동해안순복음교회(담임 도명수 목사)에서 제2차 정기지방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총무 정진학 목사(엘사림교회)의 사회로 부회장 도명수 목사(동해안순복음교회)의 기도과 서기 이항구 목사

(주전양교회)의 성경봉독이 있었다.

회장 김영준 목사(울진갈릴리큰소망교회)가 갈 3:13,14 말씀을 본문으로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제목의 설교로 하나님께로부터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역자로서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선포하였다. 이어 회계 허만운 목사(순복음성산교회)의 헌금 기도가 있었고 증경지방회장 진영갑 목사(주전양교회)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 회무처리는 회장 김영준 목사의 인도 가운데 신재영 목사의 기도로 시작하였다. 서기 이항구 목사의 회원호명 후 회장의 개회선언으로 2부 회무처리가 시작되어 각종 회무를 처리했으며 임원선출은 이전에 결의한 내용에 따라 부회장이었던 도명수 목사가 회장으로 추대되었고 나머지 임원 및 감사는 새로 임명된 회장이 임명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그리고 회무처리 폐회에 대해 신재영 목사의 동의와 김영준 목사의 제청으로 통과되었고 폐회를 하였다.

회무처리 후 직전 지방회장 및 신임 지방회장에 꽃다발 수여 및 축하하는 시간을 갖고 근처 횡집에서 맛있는 점심식사를 한 후 민물고기 생태체험관(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불영계곡로 3632)을 관람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관광을 마치고 인사를 하며 아쉬움을 뒤로하고 각자 자신의 사역지로 향하였다.



정기지방회 및 신천지, 하나님의교회 이단특강

대전지방회

대전지방회(회장 김병목 목사)는 지난 3월 21일(목) 오전 10시 30분 대전양무리교회(담임 정운기 목사)에서 '2019년 정기지방회'를 가졌다.

이날 예배는 총무 이만규 목사(좋은나무교회)의 사회로 부회장 이미순 목사(한소망교회)의 대표기도, 임원들의 특송, 지방회장 김병목 목사(금산순복음교회)의 설교, 회계 이진민 전도사(은혜와찬양교회)의 헌금기도, 교단 부총회장 엄기설 목사(은혜와찬양교회)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엠 6:11-16 말씀을 본문으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른 교인과 불



의와 탐욕을 피하고 영생과 믿음과 사랑, 인내와 운운을 좇음으로 적극적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지방회장 김병목 목사의 사회로 사업보고와 회계보고를 한 후, 신임회장과 임원을 선출하였다. 회장 정운기 목사, 부회장 이미순 목사, 총무 이만규 목사, 서기 차재현 목사, 회계 김하진 전도사) 이어서 대전양

무리교회에서 섬긴 맛있는 점심식사를 한 후에, 정운기 목사(대전기독교연합회, 이단상담소장)를 강사로, '이단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함은 물론이고, 이단에서 돌아오는 이들을 어떻게 포용하고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단특강[신천지와 하나님의교회(인증회)]'이 있은 후, 각자의 사역지로 향했다.

화평순복음교회 창립감사예배

대전지방회

대전지방회(회장 김병목 목사)는 지난 3월 23일(토) 오후 4시 화평순복음교회(담임 장정본 전도사)에서 창립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총무 이만규 목사(좋은나무교회)의 사회로 서기 차재현 목사(엘렌영호동

교회)의 대표기도, 교단 부총회장 엄기설 목사(은혜와찬양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엄 목사는 출 3:1-5 말씀을 본문으로 '영적인 경험의 힘'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홍해를 앞두고 있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불만과 한숨을 쉬고 있었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서, 홍해를 건너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었다"라며, "젊은 날 자신의 힘을 의지하다 실패했던 모세를 변화시킨 것은 호렙산 털기나무 불꽃기운에서 하나님을 만난 영적 경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하면서, "사명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영적 경험의 힘이 있어야 하고, 영적인 경험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어 한마음으로 화평순복음교회와 장정본 전도사를 위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한 후, 지방회장 김병목 목사(금산순복음교회)의 창립공포와 헌관대금 전달, 부회장 이미순 목사(한소망교회)의 축사 및 권면, 증경회장 정운기 목사(대전양무리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화평순복음교회 담임 장정본 전도사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봄이 끝의 쓸쓸한 날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축하해주신 목회자와 여러분께 감사하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권면을 붙잡고 사명을 감당할 것을 다짐했다.



국정안정, 총회 발전 위한 연합기도회

광주·호남·전라지방회

광주, 호남, 전라 3개지방회는 지난 3월 12일(화) 오후 7시 목양제일교회(담임 김양인 목사)에서 연합기도회를 갖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단과 지방회를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였다.

이날 기도회는 광주지방회 회장 최정식 목사의 사회로 시작하여 호남지방회 회장 서베드로 목사의 기도에 이어 광주지방회 사모회의 특송은 너무나 은혜롭고 아름다운 찬양이었다.

이날 강사로는 특별히 예수교대한하나님 의성회 부총서협회 회장 신재영 목사가 나서 왕상 21:1-14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 말

씀 한 절에 목숨 거는 신앙'이란 제목의 설교를 전했다.

이어 '국정안정과 경제회복 그리고 총회와 지방회를 위하여' 다함께 기도하고 회개기도를 한 후 은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참석한 목사들이 안수기도를 한 후 직전총회장 김양인 목사의 축도로 기도회를 마쳤다.

이날 기도회는 그동안 광주지방회 목회자들이 매월 둘째 주에 모여 갖던 기도회가 특별히 45회를 맞아 호남, 전라 지방회와 함께 연합으로 기도회를 갖게 된 것이다. 처음 연합으로 한 행사이기에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호남지역 지방회 목사들이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기도할 때는 너무나 은혜스러웠고 마치 1907년 평양의 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만 같았다.



은혜서원교회 창립예배, 지역복음화 헌신 다짐

충북지방회

충북지방회(회장 오병용 목사)는 지난 3월 11일(월) 오전 11시 은혜서원교회(담임 장성미 전도사) 창립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지방회 총무 김용 목사(증평새희망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부회장 김경준 목사(순복음후영교회)의 기도, 지방회 서기 신병설 목사(주사랑 순복음교회)의 성경봉독에 이어 증경회장 윤경현 목사(은 순복음교회)의 설교로 이어졌다.

윤 목사는 딤후 3:15 말씀을 본문으로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창립되는 은혜서원교회가 말씀에 바로 선 교회로 되어서 든든히 세워질 뿐 아니라 이 지역사회를 복음화 하고 아름다운 지역을 만드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했다.

이어 지방회장 오병용 목사(아멘순복음교회)의 창립 선포, 지방회 재무 조재호 목사(성대교회)의 헌금기도, 목대원 동기생 전도사의 헌금 특송, 증경지방회장 김용운 목사(증평복음교회)의 권면, 증경지방회장 이동

수 목사(원희순복음교회)의 축사가 있었으며, 장성미 전도사의 인사 및 광고에 이어 증경지방회장 김경준 목사(후강순복음교회)의 축도로 창립예배를 마치고 은혜서원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오찬을 함께 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눴다.

정기지방회 갖고 교단과 지방회 위해 기도

경기북지방회

경기북지방회(회장 탁정신 목사)는 지난 3월 19일(화) 오전 10시 30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771번길 12에 위치한 다사랑교회(담

임 이경진 목사)에서 정기지방회를 갖고 교단과 지방회 발전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했다.

이날 예배는 박웅진, 이상수 전도사의 찬양인도 후 지방회 총무 오세준 목사(순복음참좋은교회)의 사회로 부회장 이경진 목사(다사랑교회)의 대표기도, 증경회장 박행남 목사

의 장 1:27,28 말씀을 본문으로 한 '형상의 모양'이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말씀중거 후 총회와 지방회, 그리고 다사랑교회를 위해 다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증경회장 박행남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계속해서 정기지방회는 지방회장 탁정신 목사(은선교회)의 진행으로 지방회 서기 육준수 목사(향기로온교회)의 회원점명, 지방회 총무 오세준 목사의 전 회의를 낭독 순으로 이어졌다. 보고사항으로는 오세준 목사의 2018년 행사보고와 총무 및 서기 보고, 증경회장 한승수 목사의 감사보고, 육준수 목사의 재무보고가 있었다.

폐회 후에는 다사랑교회에서 제공한 만찬을 나누며 사랑의 교제를 갖고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회장 이경진 목사 부회장/총무 오세준 목사 서기 육준수 목사



■ 생명의 말씀 ■



정석현 목사

· 경江南부 지방회장
· 안성평강교회 담임

우리의 인생은 만남으로 출발하며, 이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시작되고, 형성되며,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만남은 내가 살아 있는 동안 계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만남의 복이 있는지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1) 부모와의 만남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만나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풍요로운 가정에서 태어나는 자가 있고,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는 자도 있습니다. 어떤 부모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의 가치가 정해집니다.

2) 스승과의 만남

좋은 스승 밑에 훌륭한 제자가 나온다 는 말이 있습니다. 스승을 통하여 학문과

지식과 교양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헬렌켈러는 태어나서 2살도 안되어 눈, 귀, 말 못하는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가 철들 때쯤 비판과 낙심으로 절망의 삶을 살다가 설리반이라는 스승을 만났습니다. 설리반은 헬렌켈러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며 평생의 반려자가 되었으며, 훗날 그녀가 하버드대학을 졸업할 때 설리반 선생님이 없었다면 오늘의 나도 없었다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헬렌켈러는 오늘날 수많은 장애인들에게 많은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3) 친구와의 만남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을 하면서 많은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영국의 한 시골에서 부잣집 소년이 물에 빠졌습니다. 이를 본 한 가난한 소년이 물에 들어가 그 소년을 구해주었습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아들의 생명을 건져준 소년에게 소원을 말하라고 했을 때, 이 가난한 소년은 나는 공부하는 것이 소원이라고 했습니다. 덕분에 이 소년은 런던에서 의학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년이 페니실린을 발견한 알렉산더 프레밍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프레밍은 그 부잣집 친구가 폐렴으로 죽어간다는 소식

을 듣고 자기가 발견한 페니실린을 들고 가서 친구를 구했습니다.

이 친구가 바로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인 윈스턴 처칠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왕자의 신분이었지만 다윗을 사랑하고 친구로 대해주었고,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해하려 할 때 위기에서 구해주기도 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우정은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을 왕자의 신분으로 세워서 아버지 요나단에 대한 은혜를 갚았습니(삼상9: 11).

4) 예수그리스도와의 만남

우리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그 어떤 만남보다 가장 귀한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100여년 전에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를 보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은 이 땅 어두움에 잠들어 있던 이 민족을 깨웠으며, 이 민족은 깊은 어둠의 영적 잠에서 깨어나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루게 하였고, 수많은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의 최대의 가치

값진 만남

(마 13:44-46)

가 무엇인지 알려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했고, 또 하나는 진주를 구하려 다니다가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보화나 진주는 천국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은 부지런히 일하고, 구하려 다닐 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 한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를 위해 열심을 갖고 일하는 자입니다.

또 하나는 보화와 진주를 소유하기 위해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샀다고 했습니다. 이 보화나 진주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하기에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처분해서 산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야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여기에 여러분의 헌신, 충성, 희생이 필요합니다.

다 팔았다는 말씀은 나를 비우고, 나를 내려 놓고, 나를 깨뜨려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일 깨뜨림니까? 나의 교만, 탐욕, 자이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움으로 깨뜨리는 것입니다.

모세는 왕자의 신분으로 자기 자신의

힘과 권세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했지만, 결국 살인자가 되어 애굽을 떠나게 되었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살아가다가 아무 능력도, 힘도 쓸 수 없는 80세 노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가 할 때는 절대 나서는 법이 없습니다. 실패하든, 넘어지든 어떻게 되든지 관심 없습니다. 네 방법대로 네 맘대로 해보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께 나을 때, 그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는가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영생의 길로 인도되었습니다. 이방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고, 병든 자가 예수님을 만나 치료받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에 있는 것입니다.

값진 보화와 진주되시는 예수님을 만나 그 분과 동행하며 감사와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 정

동성에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



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 준비위원회(공동대회장 김원평 교수, 사무총장 홍호수 목사)는 오는 6월 1일 퀴어문화축제가 열리는 시청광장 앞 대한문광장에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가정의 소중함과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알리는 각종 공연과 프로그램을 열겠다고 밝혔다.

바이어하우스 학술 심포지엄



피터바이어하우스학회(회장 이동주 교수)는 지난 3월 22일(금)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비우되로 햇빛산교회관 화평홀에서 피터 바이어하우스와 종교 다원주의 문제'를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피터 바이어하우스 박사는 독일의 세계적인 선교학자로 성경적 입장에서 교회연합운동과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강조하며 종교 다원주의적 구원관을 비판한다.

'살롬나비의 밤' 개최



개혁주의 이론 실천학회인 살롬나비(상임대표 김영한 박사)가 '제9회 살롬나비의 밤'을 오는 3월 31일 경기도 부천시 재 세계로부천교회(담임 최선 목사)에서 개최한다. '살롬행동의 시작은 자기확신'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전국 대학교 교수, 목회자 등이 초대된다.

북한 인권 인식 느슨해져



북한인권정보센터(이사장 이재춘)가 2014년부터 매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북한 인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지난 3월 21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2017년 응답자의 95.7%가 북한 인권문제가 심각하다고 답변했지만, 2018년에는 85.4%가 심각하다고 답해 불과 1년 사이에 북한 인권에 대한 인식이 느슨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이웃종교 존중과 참배는 별개이다

지난 15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불교의 조계종을 방문하였다. 정치인이든 새롭게 특정 정당의 대표가 되었으니 불교계를 방문하는 일은 자연스런 일이며, 또 종교계의 목소리를 듣고 존중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정치적인 행보와는 상관없이, 황 대표가 기독교인임을 알면서도, 굳이 '로마에 오면 로마법을 따르듯이, 절집에 오면 절집 법을 따라야 한다'며 대웅전 참배를 요청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황 대표가 사찰에 참배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면,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 참배를

요청하는 것은, 본인에 대한 부당한 종교적 압력이면서, 이웃 종교인 기독교에 대한 무례함이다.

황 대표가 목실한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이미 불교계에서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일터, 굳이 '절집 법'을 운운하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를 무시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 대한 우월성이나 모욕을 주려는 태도는 아니었는지?

이에 대하여 모 불교계 언론은 "개신교 신자 황교안 대표, 합장하지 않고 허리 굽혀 인사"라는 지막을 넣어 보도하고 있다. 또 총무원 원장을 뵈고 합장하지 않고 악수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만큼 개인적인 신앙이야 얼마든지 자유롭게 피력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복인 공인으로서 이웃종교의 성지에 와서 당연히 그 예법을 따라야 하는데, 개인의 종교적 신념만을 고집스럽게 고수했다'고 비난한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종교의 자유가 있고 공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불교 예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아무리 공인이라지만 자신의 종교와 예법이 있는데 굳이 불교 예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그야말로 황 대표는 공인으로, 공적인 일로 조계종에 간 것이지 불교로 개종하거

나 참배하러 간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분명 불교계가 과거 '법불교대회'를 통하여 이명박 전 대통령을 길들여(?) 했던 기억이 난다. 이제는 이런 식상하고, 전근대적인 모습에서 탈피해야 한다.

지난 십 수 년 동안 불교계는 '종교편향'이라는 주장을 통해, 이웃종교를 괴롭히고, 자신들의 종교/정치적 목적을 이루는데 크게 성공(?)하였다. 그만하면 되지 않았나? 불교가 소중하다면 이웃 종교인 기독교도 소중하다.

황 대표가 정치력을 하는 것은 잠깐이지만, 그가 끝까지 간직할 것은 기독교 신앙

이다. 이것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과거 2004년, 불교 언론은 당시 유력한 정치인 가운데 한 사람이 불교 신도였다가 기독교 신자로 등록했다는 말에 발끈하여, '개종 여부를 직접 밝히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다.

그런 불교가 이웃 종교의 목실한 신자에게 자신들의 예법을 강조하여 신앙에 흠집을 내려는 시도는 자비의 정신이 아니라 고 본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가 있다. 이것을 무시한다면, 이는 종교 스스로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질서를 뒤흔드는 좋지 못한 모습이 될 것이다.

http://agpgs.aogk.org



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19 학년도

사)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서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표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 이론과 오소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장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자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1. 지원 자격

학 과	과 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석사 (M./Master of Ministry)	2년 (4학기)	- 본 교단의 소속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의 신학교 졸업자(예정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자

2. 제출서류

- ①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장양식) 1부
- ②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③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④ 추천서(소장양식) 1부
- ⑤ 반명함판 사진 2매
- ⑥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 ⑦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⑧ 목회자 소속 자격 증명서 1부(해당자)

3. 전형일정 및 접수 방법

- ① 원서교부 : 수시 교부
- ② 원서교부처 : 본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http://agpgs.aogk.org)
- ③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④ 접수방법 : E-mail 혹은 우편이나 방문접수(luvjx7@daum.net)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 형 료 : 50,000원
-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01-04-214788(총회신학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인정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교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② 본 교단 소속 목사 중 목회학 석사(M.M)학위를 취득코자하는 자에게는 50% 장학금 혜택을 부여한다.
- ③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오전 9:30분~ 오후 4:40분 까지 진행된다.
- ④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자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

-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한국교회의 입장 신학 윤리적 관점에서 ③

성경체성을 인간의 주관적인 의식에 따라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응하여 교회는 성경체성은 인간이 지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정하신 창조질서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창조질서는 인간을 낳지 아니면 여자로 결정했으며, 하나님이 정하신 이 질서는 인간이 지의적으로 바꿀 수 없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야 합니다. 이 창조질서에 근거하여 성관계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그리고 결혼관계 안에 서만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함과 동시에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규범을 거스르는 심각한 죄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야 합니다. 특히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명확히 보여 주는 것처럼 동성애는 공동체의 존망을 결정하는 죄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동성애가 편안한 나라는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되고 망하는 운명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함과 동시에 특히 동성애를 인정하게 허용하는 교회는 해체된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합니다.

II. 신학적 배경: 퀴어 신학

이미 살펴 본 것처럼 동성애 합법화 운동이 집요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이 운동이 사회변혁 이데올로기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성애를 둘러싼 논쟁과 싸움은 궁극적으로는 이데올로기의 싸움인데, 동성애 진영에서 가장 눈에 거슬리는 영역이 바로 정동신학입니다. 그 이유는 정동신학의 체계 자체가 강고한 반동성애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동신학이 간재하는 한 동성애 진영은 항상 불완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동성애 진영은 정동신학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는데, 이 공격이 퀴어 신학(Queer Theology)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퀴어 신학은 신학방법론에 있어서 솔라이에르 마하에게서 시작된 자유주의신학의 전통을 그대로 채용하고 있는데,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자유주의신학의 한 분과가 퀴어 신학입니다.

퀴어 신학은 어떤 점에서 자유주의신학의 방법론을 채용했는가? 칸트의 비판철학의 영향을 받아 기독교가 말하는 초월적인 주제를 영성, 하나님, 심판, 부활, 내세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난감한 청중을 맞이한 19세기 말의 신학자들은 두 가지 길 앞에 서서 고문에 빠졌습니다. 하나의 길은 초월적인 주제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청중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하여 초월적 주제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길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이 방법은 너무나 힘들게 느껴졌고 낡은 방식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다른 하나의 길은 현대인의 논리와 감성에 맞추어 전통적인 교리들과 성경의 내용들을 재해석하고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조

월”에 있었기 때문에 이 길은 결국 전통적 교리들과 성경의 내용들로부터 초월적인 것들을 모두 삭제하든지 세계내재적인 주제들도 다 바꾸어 버림으로써 현대인들이 친근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신학자들은 첫 번째 길을 버리고 두 번째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처럼 현대인의 기호에 맞추어서 자유롭게 교리와 성경을 바꾼다는 의미에서 이들의 신학을 자유주의신학이라고 부릅니다. 솔라이에르마하가 물꼬를 튼 이후에 솔라이에르마하를 포함하여 스트리우스, 리틀, 트로엘릭 등의 구자유주의자들, 바르트, 볼트만, 틸리히, 라인홀드 니버 등의 신정통주의자들, 본회퍼, 로빈슨, 하비 콕스, 몰트만, 해방신학, 여성신학 등의 신자유주의, 오그덴 등의 과정신학과 같은 다양한 학파들은 서로서로 특징의 차이는 있지만 솔라이에르마하가 채택한 방법론을 따른 학파들입니다.

퀴어 신학도 이 방법론을 철저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퀴어 신학은 신마르크스주의와 후현대주의적 상황윤리의 영향을 받아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새로운 성윤리를 주장하는 새로운 시대사조에 어부각편에 어부각편다든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다든지, 죽은 몸이 부활한다든지 하는 등등의 교리들이 모두 평범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들의 눈에는 낯설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동신학자들의 눈에 낯설게 보이는 동성애도 “낯설음”이라는 공통된 특징이 있으므로 정동신학의 당당한 주제들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입장을 정당화시켜 놓고 중요한 신학적 주제들에 대한 독신(獨神)적인 해석들을 감행합니다. 동성녀 탄생의 경우에, 마리아가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일이 없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에게는 여성인 마리아의 성분만이 들어갔으므로 예수님은 외형상으로는 남성이지만 내용은 여성인 자용동체라고 주장합니다. 자용동체인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여성화되신다고 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옆구리에 난 상처인데, 이 상처는 여성의 성기이며,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액체는 여성의 성기에서 흘러나오는 액체라고 해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남성과 여성 사이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되었으며, 신자들이 세례를 받을 때 신자들의 몸도 예수님의 몸처럼 남성과 여성 사이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유동성이

있는 몸으로 변화되며, 성간 사이에는 유동성을 지닌 예수님의 몸과 연합되어 확실하게 남성과 여성 사이를 오갈 수 있는 몸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퀴어 신학에 대하여 교회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퀴어 신학은 교회가 응인할 수 있는 다양한 신학 분과들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퀴어 신학은 성경과 교리에 대하여 다른 어떤 이단보다도 더 파괴적인 해석을 지행하고 있으며, 예수님의 구속사건을 외설적으로 왜곡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성령 훼방죄를 범하는 신성모독적인 신학입니다. 교회는 퀴어 신학을 단호하게 비판해야 하며, 이에 대응하여 정동신학을 선포하게 천명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동성녀 탄생은 마리아가 남자와 성관계를 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기적적인 작용에 의하여 성관계를 가진 것과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남자아기를 출산한 사건으로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상처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는 죽음의 증거일 뿐, 여성의 성기가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찢지 않는 새 몸이지만 성경체성이 반대의 성으로 변하는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신자가 세례 성령세례 - 물 받을 때 속사람이 거듭나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지 성경체성이 바뀌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성간 사이에 성경체성이 유동적인 된 예수님의 몸과 연합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 영으로 일체하시는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주도 하에 진행되고 있는 동성애 합법화 운동은 특히 복음주의의 전통의 교회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미 이 운동은 자라나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세뇌시키기 시작함으로써 전도와 바른 윤리교육에 심각한 장애가 되기 시작하고 있으며, 이 운동이 성공하는 경우 교회에서 동성애를 비판하는 설교를 할 수 없는 때가 올 것이며, 동성애자들 목사로 임직시키거나 직분자로 임명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때가 올 것입니다. 이미 장신대에서는 교수가 동성애를 비판하는 설교를 한 번 했다가 지금 징계에 들어가 있으며, 교수들 가운데 그 누구도 동성애를 비판하는 강의를 못하고 있고 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 대학교나 중고등학교에서는 동성애비판을 사실상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운동이 성공을 거두면 그것으로 이 운동이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운동은 바로 타종교 혐오금지법으로 연결되어 교회의 전도와 선교를 법으로 금지시키는 단계로 옮겨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 단계에서 교회들이 연합하여 사력을 다하여 동성애 합법화 저지 운동에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통 기독교회에 대한 배교자들 WCC, WEA

유대인들이 말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요 8:33)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 태어난 자식이라고(요 8:44) 후손이며 조상의 정체성과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요 8:39)

지금의 한국교회 실상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 본래의 기독교회가 타고난 정통 기독교회의 정체성은 상실되고, 정 반대의 정체성으로 완전 변종된 상태가 지금의 한국교회이다.

정통 기독교회는 루터, 칼빈, 쾰링글리등 믿음의 선진들의 교회(종교개혁으로 비롯된 다음과 같은 정체이다.

로마제국의 종교 가톨릭 교회를 적그리스도로 규정하고 비 성경적이고 반 기독교화적이고 이교적인 교리와 제도와 전통을 가진 로마 가톨릭을 배격하고 성경적으로 개혁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비롯된 본래의 초대 기독교회로 회복시켜 로마 가톨릭으로 끌려온 역사를 이 어온, 이것이 정통 기독교회가 타고난 생명이고 정체이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교회는 이 같은 정통 기독교회를 로마 가톨릭에 일치시켜 없애 버리는 정체성으로 변종되었으니 지금의 한국교회가 어떻게 기독교회라고 하겠는가?

정통 기독교회는 비성경적이고 반 기독교회 적인 교리와 제도와 전통을 배격하고 성경적으로 개혁하는 성향과 성경적인 본래의 기독교회를 지키려는 보수 정체이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교회는 이와는 정반대의 정체성, 곧 비 성경적이고 반 기독교회적인 교리와 제도와 전통을 가리거나 경계하지 않고 그대로 포용하고 함께 하는 혼합주의 정체이다.

특히 정통 기독교회를 일으켜 세운 믿음의 선진들의 후예들이라고 하는 통합교단과 NCKK는 더 이상 정통 기독교회가 아닐 뿐만 아니라 정통 기독교회를 로마 가톨릭교회에 일치시켜 없애 버리는 대적의 정체성으로 완전 타락한 변종이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피 흘림과 목숨 바친 희생으로 로마 가톨릭을 배격하고 본래의 기독교회로 회복시켜 놓은 정통 기독교회를 더 이상 역사를 이어가지 못하게 로마 가톨릭에 일치시켜 없애 버리는 통합교단과 NCKK 아니 이들이 무슨 기독교회란 말인가?

정통 기독교회에 대한 배교자들로 반역자들로 역적들로, 대적들로 원수들로 정체성이 완전 변종된 상태이다. 이들에 속한 규모가 한국교회 절반 수준이니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니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통합교단과 NCKK 소속이 아닌 나머지 한국교회 절반의 경우는 정통 기독교회가 타고난 생명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함이 이 또한 비극이다.

한국교회 나머지 절반이 믿음의 선진들로 비롯된 정통 기독교회의 개혁 성향과 보수 정체를 가졌다면 통합교단과 NCKK의 잘못된 행위를 책망하고 경계하여 정통 기독교회를 지키려는 개혁 성향과 보수 정체를 나타내었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통합교단과 NCKK의 정통 기독교회에 대한 배교, 반역, 역적, 대적, 원수 행각을 알면서도 이것을 각 교단의 신학적 정체성과 전통으로, 그대로 존중하고 이들과 연합해 버린 한국교회 95% 규모이니 이러한 한국교회는 결코 기독교회라고 할 수 없다. 타고난 정체성 상실로 하수아비와 다름없는 한국교회이다.

한국교회 절반은 믿음의 선진들의 교회(종교) 개혁으로 비롯된 정통 기독교회를 비 성경적이고 반 기독교회 적이고 이교적인 교리와 제도와 전통을 가진 로마 가톨릭에 일치시켜 없애 버리는 정체성, 곧 배교, 반역, 역적, 대적, 원수로 변종된 상태이고, 한국교회 나머지 절반은 배교, 반역, 역적, 대적, 원수 행위를 그대로 용인하고 존중하고서 같은

무리가 되고만 지금의 한국교회 전체의 실상이다.

한국교회 전체가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죽은 듯이 침묵하면서도 기독교회가 당면한 문제가 아닌, 이 세상 사람들의 나라 사회 정치에는 힘이 넘치도록 살아서 운동 관심과 열정을 나타내 보이는 한국교회이니, 한국교회를 빠르게 무너뜨리는 또 하나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국교회의 이러한 총체적인 문제의 원인은 WCC, WEA의 이 세상 사람들의 사회 정치 구원 노선에 뿌리를 두고 그 물을 먹고 지란 결과로서 나타내는 행동의 열매이다.

통합교단과 NCKK는 2009년도에 가톨릭과 일치한 행위를 취소 선포하고, WCC회원에서 공식탈퇴 선언하고, 2013년도에 종교다원주의 WCC제10차 총회를 개최하여 한국교회에 물의를 일으킨 주회로서 공식 사과하고, 2014년도에 가톨릭과 함께 정립한 신앙과 직제협의회를 파기 선언하고, 2017년 102회 총회시 결의 통과시킨 관련 사실들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앞과 한국교회 앞에 파기 선언할 것을 강력 촉구하는 바이다.

한국교회의 정체성을 지금과 같이 타락시킨 WCC도 문제이지만 WEA가 더 큰 문제이다. WEA는 예수님 외에도 구원자가 있다는 종교다원주의 WCC도 포용하고, 온갖 우상을 다 숭배하는 로마 가톨릭도 포용하고, 자유주의 신학도 포용하고, 공산주의 사상도 추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의 사회 철학도 포용하고, 정치 정당도 포용하고 있기에 이러한 WEA는 정통 기독교회의 파괴하는 대적들로 복음주의라는 말을 쓰고 세계교회와 한국교회 안으로 누룩으로 침투하여 성경적인 정통 기독교회의 정체성을 좀 먹듯이 먹어 치워 파괴시켜 버리고 WEA의 포용주의 정체성으로 개종시키는 정통 기독교회의 최대의 대적이 WEA이다.

WCC와 WEA가 목적하고 추구하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사회 정치 구원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명하신 복음 전도 사명과는 완전 다른 복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왜곡시키고 변개시킨, 인간사상에서 비롯된 저주 받을 다른 복음이다.

갈1:6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1:7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1:8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지어다

WCC, WEA는 기독교회 옷을 입고 기독교회 자리에서 기독교회처럼 행동하지만 그 모든 모양새는 이리가 덮어 쓴 양의 털이며, 가면이며, 물부림에 칠한 화칠로서 이들이 비록 성경을 들먹이지만 자신들이 더하여 가진 인간 사상을 교회 안에 세우는 자들이다. 기독교회는 이 세상에 속한 인간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장사됨과 함께 믿음으로 연합하여 죄인이었던 우리 옛 사람도 죽어 장사되지만 바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난 새 생명, 새 사람이다.

롬 6:4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나라

이러한 정통 기독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인간 사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존제이다.

주후 2019년 3월 23 일

WCC, WEA 반대운동단일동

홈페이지: www.agtc.or.kr



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19학년도

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신학교는 신실한 사명자들을 성경적 신앙의 바탕 위에서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거룩한 성품과 오순절 신학을 겸비하여 이 시대가 요청하는 사명자를 배출함으로 한국과 세계복음화에 헌신할 영적 지도자를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교육목표

- ① 성경적 오순절 신학의 연구와 정립
- ② 거룩한 성품과 성령의 능력이 겸비된 일꾼 양성
- ③ 건강한 교회를 세울 참신한 지도자 양성

● 교훈

- 자질을 갖춘 소명자
- 진리충만 은혜충만한 소명자
- 복음전파에 목숨을 건 소명자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4년8학기 (140학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졸 이상의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은 자
신학과 (편입생)		• 4년제 대학졸업자 : 3학년에 편입 • 전문대 졸업자 : 2학년에 편입 •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할 경우 해당 학년 편입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② 담임목사 추천서
- ③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④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⑤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자)
- ⑥ 건강진단서(HIV포함)
- ⑦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⑧ 가족관계증명서
- ⑨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일정 및 접수방법

- ① 원서교부 : 수시 교부
- ②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③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총회신학교 교학처)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 형 료 : 30,000원(계좌로 입금)
-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01-04-214788(총회신학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본 교단 전도사 임명자격을 부여한다.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을 부여한다.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신학교 교학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

●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

ASSEMBLIES OF GOD

하나님이 주신 천년초 식품이 간헐적 단식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천년초의 효능

1)폐농성물질
 1 손상된 신체조직구조(각종 염증을 다스림)
 2 암세포 성장억제, 각종 암의 예방(쥐실험)
 (*고려대학교 손용석 교수님 압축으로 세계특허냄)

2)플라보노이드
 1 성인병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
 2 노화억제, 항산화, 항염, 항암예방(원광대연구논문)
 3 고혈압, 저혈압,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급성간염에 탁월(경희대연구논문)
 4 뇌혈관계 및 동맥경화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학계보고)

3)타식폴린 :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관절염, 통풍, 오십견, 류마티스관절염, 강직 척추염(줄기를 붙여도 탁월)
 전북대연구논문

4)호흡기, 위 : 위염, 위궤양에 탁월 서울대연구논문

5)사포닌 : 면역력 증가

6)칼슘 : 홍화씨의 24배, 멸치의 9배, 우유의 50배, 감의 343배, 딸기의 240배, 머루의 600배 들어있음
 (호서대연구논문)

(*천년초를 복용하면 뼈가 새로 만들어 진다는 엄청난 연구논문 발표됨)

7)식이섬유 : 타식물(과일류, 채소류, 곡류)과 비교불가(호서대연구논문)

8)불포화 지방산 : 고등어의 3배 오메가3, 6함유로 식품중 가장 많이 들어있음

9)비타민C : 알로에보다 8배, 오렌지보다 25배, 사과보다 48배, 딸기보다 11배로 식품중 가장 많이 함유
 (전북대연구논문)

70인 천년초식품



백년초는 멕시코 산으로 독성이 있습니다.
 천년초는 토종 한국산으로 독성이 없습니다.
 천년초와 백년초는 완전히 다른 종입니다.

*천년초는 인체에 무해하며 독성을 지니지 않음
 (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 발표)

10)기타성분 : 단백질, 탄수화물, 화분, 지방, 아미노산,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이 연구를 통해 발표됨.
11)아토피, 피부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

*간, 폐, 위, 기관지, 대장, 췌장, 신장, 자궁, 갑상선, 심장, 유방에 효과입증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됨.
 *유방·중기, 암 부위에 마늘처럼 천년초를 찢어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남.






목포시내산교회

계좌번호 기업 010-9884-5594(조경숙) 농협 176112-51-020809(조경숙)

본사 대표 방철성·조경숙
 (목포시내산교회 안수집사·권사 부부)
 010-2731-5594, 010-9884-5594

홈페이지: www.ucts.org

2019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①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②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③ 전형료 : 20,000 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기독교영신상조(기독교장례전문) 후불제

홈페이지 : www.영신상조.kr

(주)안양장례식장 경영

30년을 믿음 안에서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온 기독교영신상조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최저의 비용, 최고의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괄경영주
박인안 장로**

상품 내역

45인승 고급버스, VIP리무진, 영정꽃 선택, 장례상품 일체, 전문장례지도사, 상례도우미

총괄전문의 < **1호** 270만원 **2호** 370만원 **3호** 470만원은 가족들의 선택임>






▲ 생화사진틀(선택형) ▲ 45인승 버스 ▲ 최고급 리무진 ▲ 근조기

콜전화 : 031)444-5566 / 031)386-5566(011-896-7100)

<최신추모관 특별혜택>

미국 하나님의성회 이반젤신학대학(원) 특강

진등용 목사, 하와이 백향목교회 부흥성회 인도



강사
진등용 목사
교단 증경총회장

교단증경총회장 진등용 목사(새소망교회)는 3월 셋째주인 하와이 백향목교회(담임 김덕환 목사)에서 열린 진등용 목사 초청 부흥성회와 이반젤신학대학(원)에서 열린 특강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을 은혜 가운데 전하고 귀국했다.

하와이 백향목교회에서 열린 집회에서 진등용 목사는 '하나님을 감동시킨 다윗처럼' (삼상 16:11-13)이란 주제로 교회를 사랑하고 기쁨으로 지를 선대하며 순종과, 성령, 회개의 사람이 될 것을 당부하고 성도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했다.



미국 하나님의성회 이반젤신학대학(원) 특강에서는 '목회자의 사명', '부요역자의 사명'을 주제로 신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어찌하든지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사역자들이 될 것"을 강조하고 하

나님께서 사역의 길을 활짝 열어주실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었으며 신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사랑으로 격려해 주었다.

진 목사는 일주일 여의 선교여행을 마치고 지난주 귀국했다.



외국인 근로자·노약자를 위한 의료봉사 실시

외국인선교회

은혜와진리교회 외국인선교회는 지난 3월 17일(주일) 수원성전 세계선교센터 진료실에서 아주대의료원 봉사동아리 회원들과 협력하여 본교회 외국인 성도를 비롯한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족 및 노약자들을 대상으로 3월 의료봉사를 실시하였다.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가족 등이 주일예배에 참석하고 선교센터 진료실을 찾아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임상병리학과, 치과 등 진료과목별로 의료진들로부터 세심한 진료와 치료를 받았다.

의료진은 환자에 따라 필요한 경우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 물리치료를 실시하고



치료를 예방하여 제공하였다.

특히 이날은 무료로 피상풍 예방 접종도 실시하였다.

외국인선교회는 다음 달 의료봉사를 오는 4월 21일(주일)에 실시할 예정이다.

목양신문 지면보기
네이버 검색창에서 '목양신문' 접속 후
'목양신문 보기' 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목양신문 이메일
mok2677@naver.com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대표고문	교단총회장	지도고문	지도고문	회장	상임부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상임총무
									
조용목 목사 정척위원장	임동재 목사 총회장	김인찬 목사 증경총회장	정부용 목사 대림뽕영교회	신재영 목사 새김천교회	김기진 목사 제천양문교회	서정복 목사 남원중앙교회	최정식 목사 순복음복원교회	김바울 목사 순복음진리교회	김건수 목사 제주한마음교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에서는 교단산하 개교회 및 도시, 농·어촌, 산간벽지, 교회들을 대상으로 자비량부흥성회를 개최하고 있사오니 부흥과 성장을 위해 부흥회를 열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상 망설이고 계시는 교회는 부흥사회로 연락주시면 부흥사회에서 **완전 자비량**으로 부흥회를 인도해 드립니다.

2019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임·회원 명단

대표고문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직전총회장	총회장	지도고문	지도고문	증경회장	증경회장	회장	상임부회장	상임부회장
																	
조용목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정주중앙순복음교회)	김상수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정주중앙순복음교회)	유봉수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정주중앙순복음교회)	전동목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정주중앙순복음교회)	김용목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정주중앙순복음교회)	임종달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정주중앙순복음교회)	최광택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정주중앙순복음교회)	이창계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정주중앙순복음교회)	김인규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정주중앙순복음교회)	김양인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정주중앙순복음교회)	임종재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정주중앙순복음교회)	김인찬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정주중앙순복음교회)	정부용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정주중앙순복음교회)	임기철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정주중앙순복음교회)	김희태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정주중앙순복음교회)	신재영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정주중앙순복음교회)	김기진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정주중앙순복음교회)	서정복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정주중앙순복음교회)
부회장	부회장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총무	상임부총무	사무국장	실무총무	실무총무	실무총무	실무총무	실무총무
																	
최정식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김바울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임정광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오승목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황연연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김병국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정철현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백영자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조병희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김종연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김건수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오세준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조은애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정광호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윤혜정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조선남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김병호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박홍렬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실무총무	실무총무	실무총무	실무총무	서기	재무	회계	감사	감사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성기안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김남수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김연목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김명주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임형순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박정신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양은예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한명정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최남성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윤성수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권태현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이희숙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홍현자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정광무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최승수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주창민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우광택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정에스터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회원	회원	회원															
																	
조건수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백광관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유복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문의

회장 신재영 목사 HP : 010-7457-9768
상임총무 김건수 목사 HP : 010-3698-5764

CTS기독교TV, 제100차 이사회 개최

이승희 목사 「외치는 자의 소리」 제하의 설교

CTS기독교TV(공동대표이사 전명구, 림형석, 이승희 목사)는 3월 11일 노량진 사옥에서 제100차 이사회를 제1부예배, 제2부 회의 순으로 진행했다.

제1부 예배는 공동대표이사 이승희 목사의 사회하에 이사 최병철 장로(기갑가 대표기도하고 공동대표이사 이승희 목사가 「외치는 자의 소리」(사 40:3-5)는 제하의 말씀을 전하고 축도로 제1부 예배를 마쳤다.

제2부 회의는 의장 이승희 목사(공동대표이사)의 사회로 ▲2018년 주요업무 보고를 경영본부장이 영상으로 영입보고를 했다. ▲2018년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의 건은 감사 김해철 목사가 유인물로 본사 결산감사보고를 하였다. ▲지회사 관련 보고와 조직개발 관련 보고는 경영본부장이 맡아서 보고 했다.

CTS기독교TV 감경철 회장은 “25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복음 방송의 지경을 넓혀왔다”며 “순수 복음방송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시청자들에게 감동과 은혜를 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말을 했다.



백석대학교(총장 장종현 박사)는 지난달 21일 2018학년도 졸업식에서 방송선교에 헌신하고 한국교회 연합사업에 기여한 공로로 CTS 기독교TV 감경철 회장에게 명예인문홍보학 박사학위를 수여했다.

이번에 명예인문홍보학 박사학위를 받은 감경철 회장은 세계한국방송협회(WAKB) 회장, 국가조찬기도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국민훈장 목련장 대한민국인

국대한민국인 방송인부분 대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CTS는 1996년 케이블 TV 개국 당시, 기독교 86개 공교단과 43개 주교단이 참여하여 세운 한국 최초의 기독교 TV 방송으로, 주요 3대 교단장이 공동대표 이사를 역임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중앙총회에서는 총회파송이사 김애자 목사가 이사회에 참석했다.

정홍호 박사 아신대 10대 총장 취임

시대와 소통하는 대학교로 발돋움 할 것

정홍호 아세아연합신학대학(이하 ACTS) 10대 총장이 지난 3월 14일 교내 채플에서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시작했다. 임기는 오는 2023년 2월까지 4년이다.

정 총장은 취임 인사에서 “ACTS가 살아야 한국교회와 선교가 살아난다. 우리 대학은 특정 교단에 속하지 않은 국제적이고 복음적이며 교회연합적인 대학이기에 우리 대학이 살아야 한국교회와 세계선교에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 교육부 평가 등 대학을 둘러싼 외부환경이 급속도로 변화돼 위기를 맞고 있지만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 변화와 혁신으로 세계 복음화에 대한 학교 정체성을 정립, 세계를 섬기며 시대와 소통하는 대학교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ACTS는 현재 최신회의 기숙사 건립을 추진 중이며 복음화의 꿈을 키우는 미래의 목회자와 선교사들을 양성한다.

정 총장은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에서 1997년부터 선교학을 가르쳐왔으며 서경대학교에서 영어영문학을 전공하고, ACTS영어과정 M.Div., 미국 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를 거쳐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에서 Th.M.(조직신학), Ph.D. in Intercultural Studies 학위를 취득하였다.

수양관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적과 은혜의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줄 믿습니다

목포시내산교회 부부목회자 신앙간증입니다. 70인 천년초식품을 복음의 동역자 방철성 안수집사 조경숙 권사 가정에 천년초를 2000명 정도 전한 부인에 전 성도가 헌신과 봉사로 심게 하였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은혜기운에 개발하게 하시고 어느날 금식을 하는데 보호식을 잘하지 못해 체중은 불어나고 고혈압, 관절염, 위염 등 나타나는 열매는 아픈 병만 남아 통곡하며 애통하는 기도를 드리다 지쳐 쓰러졌습니다. 깜빡 잠이 들었는데 우뚝 같은 음성이 빛 가운데 들려오기를 천년초를 마시면서 은혜로 금식하여야 하

는 소리에 깨어보니 새벽이었습니.

바로 천년초 엑기스를 하루에 10봉 정도 마시며 금식을 하였습니다. 물은 한모금도 마시지 않았습니. 다. 아픈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 기쁨이 충만하여 3일 금식을 마치며 주신 출15장 22~26절 말씀대로 응답 받았습니.

크신 은혜와 은총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또한 천년초 금식수양관의 비전을 보여주셔서 2012년 12월 8일 수 14장 12절 말씀을 강단 위에 프랭카드에 새겨서 붙여놓고 수양관부지를 하라해 주시길 기도드리며 전성도가 함께 판매하여 불현한 예물로

2016년 7월 10일 약 400평의 수양관부지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신 기적과 은혜의 하나님, 은혜와 진리를 체험케 하신 수양관건축을 위해 많은 분들이 드시고 하루 속히 은혜의 동산이 세워져 올바른 복음이 선포되길 소망하며 부족한 중 두서없이 올립니다.

호남지방회장
목포시내산교회 서베드로 목사
조사랑 부목사
2019년 3월 14일

외국인·이주민을 위한 뷰티서비스

광주이주민건강센터 노동자와 이주민 대상

국제뷰티구호개발 NGO (사)월드뷰티핸즈(WBH) 이사장 정현일, 회장 최에스터 신한대 교수)는 WBH광주광역시지회(회장 나병석 광주대 교수) 주관으로 지난 3월 18일 광주광역시 관산구에 있는 광주이주민건강센터에서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민을 중심으로 뷰티서비스를 실시했다.

광주광역시지회는 광주에 거주하는 어렵고 소외된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민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뷰티서비스를 실시하여 대한민국에 잘 정착하도록 사랑의 뷰티서비스를 진행해 오고 있다.

이날 뷰티서비스는 나병석 회장을 비롯한 정원지 교수(광주여대), 김수영 교수(순천제일대)와 각 대학 전문

인 뷰티서비스봉사학생들이 참여해 헤어미용과 네일미용 등 다양한 뷰티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최에스터 중앙회장은 “광주광역시지회를 비롯하여 전국지회에서 활발한 뷰티서비스 재능기부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면서 “전국지회와 함께 이번 여름방학을 통해 전국 농어촌 오지 마을을 찾아 뷰티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월드뷰티핸즈는 K-뷰티 헤어미용, 메이크업, 피부미용, 네일, 화장품 등 5대 분야의 전문 교수와 기관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는 국제뷰티구호개발NGO로 정부의 1365지원봉사 인증기관으로 뷰티지원봉사자 신청을 받아 뷰티서비스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성서공회에 가나성경 기증, 영안교회

가나 '트위 아잔테어 성경' 1만부 보내

대한성서공회는 지난 3월 8일 오전10시30분 용인시 소재 반포센터에서 영안교회(양병희 목사)의 후원으로 가나 '트위 아잔테어 성경' 10,000부를 보내는 기증식을 가졌다.

가나성서공회는 이번에 기증받은 성경을 통해 가난 속에서 꿈과 소망을 잃은 청소년들과 학대받고 고통당하는 여성들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보급할 예정이다. 가나의 청소년들과 여성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기증식에서 영안교회의 양병희 목사는 히 4:12절을 본문으로 한 '성경이 해답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통해 “종교 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이라고 외쳤듯이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영혼의 양식입니다. 성경이 없어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곳이 있다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경을 보내는 사역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경을 받게 될 가나의 영혼들에게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임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라고 전하였다.

동 공회 권의현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가나에 성경을 기증할 수 있도록 정성을 모아 주신 양병희 목사님과 성도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보내는 성경을 통해 가나의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잃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라며 영안교회에 감사 인사를 전하였다.

현재 가나의 많은 청소년들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성경을 구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가나성서공회의 에라스무스 오돈코(Erasmus Odonkor) 총무는 “성경 한 권이 청소년들에게 전해지면 그 가정 전체가 은혜를 받습니.”라며 성경 보급의 중요성을 전하였다.

‘트위 아잔테어 성경’ 10,000부는 부산회에서 선편으로 운반되어 5월 중순 쯤 가나의 테마(TEMA)에 도착될 예정이다.

정직과 진실이 반드시 이긴다

성원 박영률 목사의
칼럼집

봄은 언제나 겨울을 이긴다



▲박영률 저(사인, 교육학박사, 철학박사)
하나로 선 사상과문학사 간
p235 / 값 15,000원

이 책은 정직과 진실을 추구하는 기독교세계관을 가지고 현역에 있을 때나 떠난 후에도 침묵하지 않고 할말을 하면서 “해야 할 말을 안 하는 것이 죄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는 것도 죄”라는 신념을 가지고 살아온 성원 박영률 목사가 7년간 복음신문에 기고한 칼럼을 묶어서 발간한 책이다.

박영률 목사는 목회자로, 교육자로, 문학인으로, NGO운동가로 43년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해왔다.

저자 박영률 목사는 이번 칼럼집에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칼럼마다 날짜를 밝혔으며,
보는 사람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저자는 침묵하지 않고 있었음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이책의 수익금 모두는 특수지역의 교육선교비용으로 사용됩니다.



▲박영률 저(사인, 교육학박사, 철학박사)
하나로 선 사상과문학사 간
p235 / 값 15,000원

(사)세계총 제7차 정기총회 개최

한반도 평화정착 위해 주요 사역 발전시켜 나가기로



(사)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 제7회 총회가 19일 대극 방극 샌추리 파크 호텔에서 열려 신임 대표회장에게 최낙신 목사를 선출했다.

회순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된 이날 총회에서는 수석 상임회장은 윤보환 감독을 선출하고 한반도 평화기도 운동을 비롯하여 세계총의 사역을 지속적으로 진행,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총회에 이은 대표회장 이취임식은 윤보환 수석상임회장의 사회로 진행, 김광숙 원장(배합위협)의 몸전양 후에 중경대표회장 황의춘 목사가 '신이라 하더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직전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의 이임인사 후에 김발, 의사봉이 전달됐다.

대표회장 최낙신 목사는 취임인사를 통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세계총 발전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중경대표회장 김요셉 목사와 고시영 목사, 황의춘 목사의 격려사와 미기총 대표회장 심평중 목사와, 재일한국기독교연합회직전회장 이상열 목사, 주태국한국인교회 수석부회장 송형관 목사가 축사를 전하고 직전대표회장에게 공로패 전달, 초대대표회장 박위근 목사의 축도,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의 광고 순으로 진행됐다.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시상식

루터대 권득칠 총장, 교육혁신부문 수상

루터대학교는 권득칠 루터대학교 총장이 지난 3월 7일 롯데호텔서울에서 TV조선이 주최하고 조선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시상식에서 교육혁신부문대상을 수상하였다고 밝혔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한 이 시상식은 탁월한 리더십과 진취적인 경영혁신을 바탕으로 기업 활동 및 기관 경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국가 경제발전과 인재양성 및 새로운 기업문화에 기여한 대표경영인을 선정하여 공로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권득칠 총장은 지난 2017년 제7대 루터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한 이후, 그동안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어려운 상황에서 있던 루터대학교를 혁

신하여 지난 해,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룩하였다. 권득칠 총장은 이후에도 혁신과 개혁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2019년에는 소규모공공계대학 최초로 ISO 9001 인증을 획득하여 끊임없이 교육 전 분야에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권득칠 총장은 수상소감에 대한 질문에 "대학의 구성원 모두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대학의 발전을 위해 받았듯이 노력해 온 것에 대한 사회의 격려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필요한 섬김과 소통의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 혁신과 성장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가족세트전도 참관기

전도하면서 체험을 느끼면서

소심한 성격과 나이탓만하며 아무 것도 못하고 부족함이 많은데도 담임목사님은 저희 가정을 위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기도해주셨고 끊임없는 전도사님의 기도

와 사랑으로 전도팀에 첫 발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쑥스럽기도 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가벼울 수 없는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번엔 박영수 목사님을 만나고 전도하는 모습에서 많은 걸 배우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저녁 예배 중에 <가족세트전도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기도할 때, 저는 본득 열두 해를 혈투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지락만 만졌을 뿐인데 병고침 받았던 것을 생각하면서, 나의 이픈 곳에 손을 대고 성령 충만함과 치유함을 받기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때 목사님이 왼쪽 귀가 나은 사람이 있다고 말할 때 저는 저의 왼쪽 귀를 생각지 못했습니다. 저는 귀를 수술한 지가 30년이 지났고 요즘은 전화벨소리마저 아주 희미하게 들리지만 너무 빠르게 살다보니 왼쪽 귀는 잊고 살았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는 도중 나이의 감이 짙어지고 이상했습니다. "혹시 내 귀?" 순간적으로 내 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집으로 가다가 핸드폰을 꺼내서 왼쪽 귀에 소리를 들었더니 오프닝 귀와 똑같이 들리는 것입니다. 비가 오는데도 걸음을 재촉해서 집에 가서 다시 들어도 왼쪽 귀에 똑똑히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섬리는 너무 놀라웠습니다. 나도 모르게 큰 소리로 '할렐루야! 아멘!'하고 외쳤습니다. 나 같은 죄인 허물 많은 인생을 값없이 이토록 사랑하심과 아무 것도 헤드린 것이 없는데 무조건 사랑

만 주신 하나님께 감사 감사할 것뿐입니다.

전도현장에서 눈앞에 보인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요즘은 아파트의 굳게 닫힌 문이 열리기도 어려울 뿐 더러, 못사람들은 선물을 정성껏 마련해 주어도 말씀을 전파할 기회조차 주지 않습니다. 차를 끊어 드리고 화려한 무엇을 준비해 전해도 귀들오므로 듣지 않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박영수 목사님은 길에서 만난 사람들을 비롯해 미용실, 식당, 버스정류장, 학교정문 등을 일일이 방문하였습니다.

미용실에서 미용하던 사람이 손님의 머리귀하기를 갑자기 선 채로 박 목사님의 영접기도를 받던 모습, 중화요리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아이엄마가 영접기도를 받는 낯선 경험에 얼굴을 붉히다가 어느새 평안을 찾은 얼굴로 구원받는 모습, 식당에서 식사를 준비하던 주인이 눈물을 글썽이며 영접기도를 받는 모습 등 발걸음을 옮기는 곳마다 기적의 순간이 이어졌습니다.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한 생명 귀한 영혼을 살리는데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과 은혜로 하느니라 갈 때까지 최선을 다해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소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순천영락교회 임정숙 권사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학장 박영수 목사
031)692-1691, 010)3730-2573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월드비전-국립현대미술관, MOU 체결

3월부터 11월까지 행사에서 미술치료 사업비 모금

국제구호개발NGO월드비전(회장 양호승)이 지난 3월 12일(수)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내 아동시설 내 미술치료 공간 마련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업무 협약식에는 월드비전 양호승 회장, 나눔본부 정영순 본부장을 비롯해 국립현대미술관 윤범모 관장, 소통홍보팀 이성희 팀장 등 양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3월부터 12월까지 'MMCA 나잇(총4회)', 'MMCA 소망춧볼(총1회)' 등 행사를 진행, 행사 참가비 전액을 월드비전 협력 국내 아동시설에 미술치료 공간 마련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기부할 예정이다.



월드비전은 국립현대미술관이 모은 후원금으로 오는 2020년부터 미술치료 사업을 진행한다. 월드비

전과 협력하고 있는 국내 아동시설 중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필요한 곳을 선정, 시설 공간 운영을 지원하여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을 도울 방침이다.

월드비전 양호승 회장은 "예술을 통한 사회공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는 국립현대미술관에 감사드립니다"며 "아이들에게 안전한 주거환경이나 영양 잡힌 식사만큼 중요한 것이 정서적 안정감으로, 월드비전은 문화예술 콘텐츠를 적극 활용해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정서적 건강을 지키는 데 애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현대미술관은 지난해에도 월드비전 분장비해아동 지원사업의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2천만 원을 후원하는 등 문화예술을 통한 나눔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CTS, 파이오니아 대표 스티브 리처드슨 목사 출연

CTS기독교TV(이하 CTS)는 매일 11시 생방송을 통해 CTS뉴스를 방영하고 있다. 특별히 '뉴스 더 보기' 시간에는 매일 기독교계에서 이슈가 되는 전문 사역자들을 초대해 생방송으로 대담 프로그램을 담고 있다.

지난 3월 19일 '뉴스 더 보기'에는 특별한 인사가 초청됐다. 파이오니아 대표 스티브 리처드슨 목사(이하 리처드슨 목사)가 그 주인공이다. 30년간 미전도

종족과 전 세계복음전파에 앞장선 국제선교단체 파이오니아는 40년 전 리처드슨 목사 장인인 테드플레처에 의해 설립됐다. 시편 2:8 말씀인 "내가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라는 구절을 하나님께 받고 시작된 파이오니아는 현재 100개가 넘는 나라에 300개 선교팀, 3,000명이 넘는 사역자가 있으며, 특별히 미전도종

족 선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1만개가 넘는 종족이 있고, 6900개의 언어가 있는 가운데 이 사역에 가장 필요한 것은 여전히 일꾼이라고 리처드슨 목사는 말했다. 성령 충만하고, 언어 습득에 탁월한 일꾼이 필요하며, 아직도 수많은 미전도종족에 선교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파이오니아와 협력기관이 한국에는 없지만 앞으로 더 많은 한국교회와 성도들과 연합해 사역을 하고 싶다고 전한 리처드슨 목사는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 안다"며 "선교사들의 헌신이 아니었다면 현재 한국교회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주님의 몸 된 교회로서 이전 세대의 선교 열매임을 잊지 말고 이 열매를 전 세계에 나누고, 전파하는 한국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대담을 나눴다.

이번 '뉴스 더 보기'는 CTS뉴스 유튜브와 CTS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CTS는 각 지역 케이블과 SkyLife 183번, IPTV(KT olleh tv 238번, SK BTV 301번, LG U+ 239번), 해외 위성, CTS APP를 통해 전 세계에서 시청할 수 있다.

신이 내린 바다 천사의 섬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으로 만든 소금물

구강건강의 파수꾼 옥금수(소금물)

옥금수의 효능

천해의 청정바다인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소금으로 만든 옥금수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무기질과 인체에 이로운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변을 잘 통하게 해주는 성질과 몸을 따뜻하게 하고 산성화된 몸의 균형을 맞춰주며, 좋은 소금을 잘 먹으면 장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금이란 말의 금은 작은 금과 같이 귀한 물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금물로 가글과 양치를 하면 잇몸의 염증을 가라 앉히고 구강이 건강해지며 세균으로 가득한 혀와 입 안의 위생 및 장을 이롭게 합니다.

사용법 및 효능

*소금물 1/4컵을 따라 칫솔에 묻혀가며 치아에 소금물이 골고루 묻혀지도록 골고루 닦아 줍니다.
*이를 반복하며 최소 5회 이상 치아를 골고루 닦아주면 치아 표면 미백과 함께 잇몸 질환까지도 사라지는 광범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치아를 닦은 후 가글하실 때는 입 안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여러번 반복해 주시면 성대보호, 감기에 방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 양치의 주요 효능

1. 충치 예방
2. 풍치 예방
3. 잇몸 질환
4. 혀 살균
5. 편도 보호
6. 감기 예방
7. 헛 기침 예방(소금물 양치, 가글의 효능)

옥금수(소금물) 홍보 용품 활용을 희망하시는 교회와 성도님께는 500ml 20pet-30pet 단위로 보내 드립니다. 500ml 20개 들이와 500ml 30개 들이 두 종류가 있으며 500ml 1pet 당 1,000원입니다. 수령하시는 교회 또는 성도님들께서는 주소, 성함, 연락처를 문자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체험담

- 영동포에서 묵하고 있는 박00 목사님은 해마다 감기로 인해 불편한 일이 많았는데 옥금수(소금물)로 양치를 하고난 후 감기도 걸리지 않고 입냄새도 사라져서 감사하다는 전화를 해주셨습니다.
- 부산에 사는 권00 권사님은 풍치로 늘 음식 먹기도 불편했는데 옥금수(소금물)로 양치하고는 많이 좋아져서 감사하며 재주문을 해주셨습니다.

“간수가 잘 빠진 천일염입니다”

전국의 교회에서 사랑의 바자회 또는 이웃돕기 선교회 등에서 판매를 위해 구입을 원하시는 경우 전화로 문의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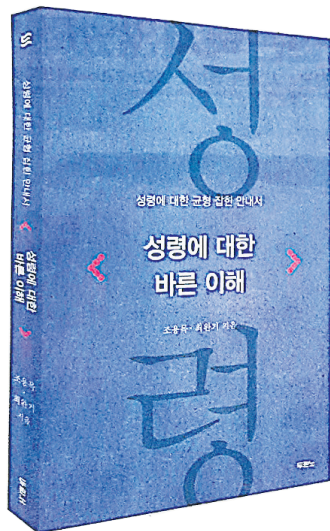
20개들이 20,000원
30개들이 30,000원

옥금수(소금물) 판매점을 모집합니다

상담 문의 **010-3000-7602**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357-991640(김옥태)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

잘못 알고 오해했던 '성령론'을 바로 잡는 책



성령에 대한 균형 잡힌 안내서

당신은 성령 충만한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는가? 그동안 한국교회는 성령에 대한 왜곡된 시각과 가르침으로 크고 작은 혼란을 야기해왔다. 이는 곧 성령의 바른 이해를 가린 채 은사주의, 변영신학으로 번져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케 했다. 이 책은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하여 성령론을 일목요연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이 균형 잡힌 지침서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성령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 성령충만한 삶으로 안내할 것이다.

왜 다시 '성령론'인가?

책을 집필하기 전 저자의 고민은 '이미 수다한 성령에 관한 책이 출간되어 읽혀지고 있는 이 때에, 굳이 또 한 권의 책이 출간될 필요가 있는가?'였다. 그럼에도 출간을 결심한 것은 '성도들의 성령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가장 큰 이유였다. 신학의 여러 분야 가운데서도 유달리 성령에 대한 이해는 심지어 같은

교단이라 해도 다른 견해를 가지곤 한다. '성령세례'와 '방언', '신유'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게다가 이 성령에 대한 이해가 심하게 왜곡될 경우 '신비주의'나 '은사주의'로 빠질 수 있기에, '성령론'의 연구와 올바른 안내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면 성령은 도대체 무엇인가? 성령은 성령을 무엇이라 말하는가?

성령은 힘이냐 능력이 아니다, 성령은 하나님이다!

저자는 성령을 알기 위해서는 더 깊이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성경은 신약뿐 아니라 구약에서도 성령의 일하심을 기록했고, 이는 태초로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성령은 어떤 신비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늘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혜사이다. 이밖에도 '성령충만'의 올바른 이해와 '성령세례', '은사'와 '열매', '방언'과 '신유' 등,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하는 이 책의 균형 잡힌 안내를 통해 한국교회의 성숙과 뜨거운 성령충만의 회복을 기대한다.

저 조용목 목사

은혜와진리교회를 개척 설립해,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의 목자로서 바른 길의 안내자가 되어 주고 있다. 현재 한국신학회 이사장, 세계 하나님의교회 실행위원이다.

자 최완기 목사

세인트루이스교회에서 30년 간 목회한 후, 현재 시카고에서 '4-14 윈도우'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 프라미스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산하 지방신학교

2019학년도 신·편입생 모집요강



(학장 한 명 점 목사)

예하성부산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부산시 부산진구 새싹로35번길 14
- T E L : 051)803-3927
- F A X : 051)581-0198
- e-mail : yhsbs3927@hanmail.net



(학장 김 양 인 목사)

예하성광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372-25
- T E L : 062)952-7004
- F A X : 062)953-5004
- e-mail : sm1004@daum.net



(학장 오 일 선 목사)

예하성충남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11길 14 한길프라자 B동 301호
- T E L : 041)567-3004
- F A X : 041)575-3171
- e-mail : changdeman@hanmail.net



(학장 김 상 용 목사)

예하성청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학교장 장학금, 이사장 장학금, 지방회 장학금, 목회사역자, 사모, 자녀 장학금
- 주 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68
- T E L : 043)274-2265, 273-2211
- F A X : 043)237-2705
- e-mail : ho-gi@hanmail.net

ASSEMBLIES OF GOD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http://www.aogk.org / e-mail:aogk@aogk.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본부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나길 8
TEL:02)2675-5181~3 FAX:02)2677-5181

초대시

이제인 // 은혜와진리교회 장로

사모하는 눈빛으로

마음 문 열고 하늘을 보면
파란 하늘 저편 건너에도 또 하늘 있네.
하늘 건너 하늘 그곳, 하나님나라
사모하는 눈빛으로만 갈 수 있는 나라
그곳이 내 사랑하는 주님 계신 곳iero.....

작은 자여, 부족한 자여,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를 아노라, 내게로 오렴.
은혜의 강 은하수에 몸을 씻고, 일곱색깔 무지개로
믿음의 다리를 놓아, 기도의 말을 달려,
찬양의 선물을 들고 오렴.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가던 길 멈춰 서지 말고, 부르던 찬양을 그치지 말거라
다시 오실 주님이 가까이 계시온대
말에서 신을 벗어 들고, 허리를 동이고 지체지 말거라.
새벽 동 트면 또 늦은 하루가 시작될 터인데
잠자는 자를 깨우라, 아이를 부르라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심이라.

주여! 어찌하오리까?
동네 어귀 십자가 위에 내 마음을 올려놓고
주님 오실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오나,
참으로 두렵기는, 주님 사모하는 마음 외
내 한 일이 너무 없나이다.



주님 사모하는 마음뿐 내 한 일이 너무 없어 부끄러울 뿐입니다....

국가인권위, 현재에 “낙태죄 위헌” 의견 제출… 논란 예고

헌법재판소(헌재)가 낙태죄 위헌 여부를 곧 결정하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최근 현재에 ‘낙태죄 위헌’ 의견서를 공식 제출했다. 인권위는 이 의견서에서 “낙태 여성을 형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생명권, 재생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영애 위원장도 18일 보도된 국내 한 일간지 인터뷰에서 “낙태를 형벌로 처벌하는 건 여성의 기본권 침해라는 의견을 담아 현재에 표명했다”며 “(인권위가) ‘낙태죄에 대해 어떠한 예외 사항도 두지 않은 채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낸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런 입장은 ‘소수자 인권 보호’라는 인권위의 존재 이유와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태아야말로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나약한 ‘소수자’인데, ‘여성의 기본권’을 앞세워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점 때문이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이명진)는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가뜩이나 모체에 의존해서 생사여탈권이 결정되는 태아를 국가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생명이라고 보호해줄 수 있다는 것인가. 가장 약한 생명을 가버려 여겨서는 안 된다. 태중에 있는 가장 작은 사람 하나라도 존중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통해 “원치 않는 임신이었다고 해서 이미 독립적인 생명체로 성장하고 있는 태아를 낙태하는 것은 태아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나의 권리는 소중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약자이며 마땅히 보호 받아야 할 태아의 생명 권리는 하찮게 여기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낙태죄 위헌 여부를 두고 논쟁이 첨예한 가운데, 국가기관이 어느 한 쪽에 치우쳐 현재에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012년 현재가 4대 4로 낙태죄 합헌 결정을 내릴 당시 인권위는 특정 입장을 내놓지 않았었다. 한편, 최영애 위원장은 위 일간지 인터뷰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의지도 드러냈다.

사설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므로

북한이 지난해 비핵화 의향을 내세우며 대화에 나서면서도 뒤에서는 핵·미사일 개발에 집중하며 전 세계를 기만해왔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대북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12일 공개한 연례 보고서는 지난 1년여에 걸쳐 요란했던 북핵 협상 기류를 뒤집을 수 있을 정도로 충격적이다. 더욱이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안보리(安理) 15개 이사국 전체의 승인을 받아 발표했다. 지금은 북한이 핵무기 생산을 계속하고 핵위협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더 중요해진 때이다. 이런 때 전후 60년 가까이 이어오며 한미동맹의 근간이던 연합훈련을 한미 국방장관이 전화 한통으로 급하게 줄줄 끊었다. 사실 연합훈련 폐지는 한국을 배제한 채 트럼프 대통령이 단독으로 내린 결정이었다. 한국이 이를 환영하듯 응수한 것이다. 미 국방부는 지금까지 동맹국과 협력을 강화하려면 합동훈련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정권이 작년에 합동훈련 중단 의 뜻을 밝힌 이후에는 군사훈련이 가장 2년은 없어도 지장은 없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그러다 결국 폐지에까지 이른 것이다.

트럼프가 동맹의 가치보다 비용을 우선하며 철저히 한국을 무시한 결정을 한 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대북 협상 원칙을 존중하지 않고 남북경협, 대북제재 해제 등을 주장하며 계속 엇박지를 내왔던 것도 크게 작용했다. 한·미간 이견이 계속되면서부터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이 미운털 한국을 위해 더 이상 협세를 남비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 이런 사태에 이르게 했다. 국제사회는 대북 제재를 견고히 유지할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개성공단·금강산 재개 등 제재 완화에 나서고 있다. 이대로 가면 한국 정부나 기업이 제재 대상에 포함되는 기막힌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북한은 핵무기를 더 개발하고, 한·미 동맹은 약화하며, 한국은 국제사회 외톨이가 되고 말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므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끄됨 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라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뇨 그들은 다 웃고 같이 하여 지며 쫓아매 먹히리라”(사 50:7-9)

스마트폰 과의존 심각, 절제에 나서야

현재 우리나라는 3세 이상의 인구 가운데, 지난 2017년 기준으로 88.5%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를 문명의 이기(利器)로만 받아들이기 아니라, 이에 대한 과의존도의 위험과 중독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만약 이에 대한 대비가 없다면 여타한 중독 현상들과 함께,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추가될 것이다. 지금도 여러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옆 사람과의 대화 대신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 것을 흔히 본다.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젊은이들, 심지어는 어른 세대들도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 스마트폰에 빠져 있다면, 이는 중독 정도가 아니라, 우상과 같은 존재가 된다.

스마트폰문화운동본부(공동대표 양병희 목사, 운영위원장 이동현 목사)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 주요 종교단체와 함께 스마트 중독 예방을 위한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한 기독교계의 협조와 참여가 필요하다. 스마트폰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찾아 주는 교회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교회별, 교단별로 교육하고 장기적으로 공과를 만들어서라도 아이들이 중독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교육을 하고, 중독된 경우에는 여기에서 빠져나오도록 꾸준히 가르쳐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교회에서 주일학교와 학생부가 점점 줄어드는 시점에서, 이에 대한 대비와 교육을 늦추게 된다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세상 문화에 계속 빼앗기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에 대한 실천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본다. 마침 지금은 시순절 기간이다. 디지털 미디어 중독에 대한 금식과 절제 운동을 교회에서 시행하면 어떨까? 스마트폰 사용 절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으로 가르쳐도 좋을 것이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편 집 고 문 : 정책위원장 조동목 목사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인쇄인 : 배성환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2)2677-4609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낙태법 폐지 절대 반대!!

정부와 사법부, 헌법재판관님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낙태죄에 관한 문제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인류 보편적 양심에 의하여 호소합니다. 낙태죄는 존치되어야 합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낙태죄 폐지 시도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무어라 해도 인권이 생명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생명은 어느 권력 또는 다른 인간에 의하여 양도되거나,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생명은 천부적인 것입니다.

태아 낙태가 합법이 된다면,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악한 일 중에서도 가장 잔인한 일입니다. 절대 약자인 태아는 스스로 생명 방어 능력이 없으며, 어떤 의사 표시나 합당한 변호도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낙태죄 폐지는 인류의 재앙이 될 것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연간 5만 건의 낙태가 이루어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만약에 낙태죄가 폐지된다면 태아를 살해하는 낙태행위가 최소 100만~300만 건이 되리라는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낙태 허용에 관한 세심한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낙태를 허용하는 몇 가지 예(例)가 있음으로 인하여, 일반적 인권이 훼손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태아 살해를 합법으로 결정할 경우 그에 따르는 재앙은 막을 길이 없을 것입니다. 임의적으로 낙태를 죄의식도 없이 무분별하게 행하게 될 것입니다. 생명경시 사상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징계를 자초하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낙태반대는 한 종교의 교리(敎理) 수호를 위함이 아닙니다. **생명존중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에 낙태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태아의 생명을 정부와 사법부,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지켜주셔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올바른 판결은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며, 국가 미래의 바른 길을 결정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우국충정의 염원(念願)으로 우리는 낙태법 폐지를 절대 반대합니다. 간곡히 호소합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국가를 사랑하는 국민 절대다수가 원하고 있는 낙태법을 존치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존중 사회, 밝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도록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9년 3월 27일



사단
법인

한국교회연총회

(이 성명을 더 많은 국민이 알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신 분은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지킴이 계좌번호: 신한 100-028-576245 (사)한국교회연총회, T 02-708-4585)

2019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교역자국 춘계 단합 기도회

주 제 : “이슬같은 여호와의 은혜를 바라보자”(호 14:5~6)

- 일 시** | 2019년 4월 29일(월)~4월 30일(화)
월요일 오후 3시부터 접수
- 장 소** | 순복음반송교회(한순남 목사 시무)
부산 해운대구 신반송로 163 교회 : 051-544-9155
- 대 상** | 전국 여교역자국
- 문 의** | ① 국장 한순남 목사 (010-2853-8190)
② 차장 김바울 목사 (010-8652-9340)
- 계좌번호** | 농협 352-1333-4784-13(한순남)
- 회 비** | 1만원

♡♡♡ 초대의 글

할렐루야!

새싹이 돋아나고 꽃망울을 터트리는

새 생명의 아름다운 계절에 남쪽의 따뜻한

바닷가 부산에서 여교역자국 춘계 단합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전국에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며 수고 하시는 여교역자 동역자
여러분을 모십니다. 다 모여서 성령충만 은혜와 충전의 기도 시간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살롬

- 여교역자국 국장 한순남 목사 올림 -



국장 한순남 목사
순복음반송교회

2019년 춘계 단합 기도회 일정표

4월 29일(월)	4월 30일(화)
	7시30분 아침식사
	8시30분 폐회예배
	10시 부산탐방
	11시 점심식사 후 개교회로
3시 접수	
4시 개회예배	
6시 저녁식사	
7시30분 부흥회	
9시30분 숙소로	

지부장들은 참석 여부 및 인원파악을 하여 4월 15일까지 알려 주십시오.
(숙소예약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총회장 임종재 목사
산정리순복음교회



고문 정부용 목사
대림엘교회



국장 한순남 목사
순복음반송교회

조직

임원단

전국지부장

차장	기획부장	홍보부장	행사부장	복지부장	선교부장	섭외부장	사회부장	찬양부장	예배부장	봉사부장	정보부장
순복음지리교회 김바울 목사	일산엘교회 조영란 목사	회복순복음교회 김순자 목사	예전순복음교회 최영희 목사	순복음경동교회 이경자 목사A	순복음침례교회 조은주 목사	기장순복음교회 조병희 목사	군업순복음교회 김종애 목사	복동순복음교회 백영자 목사	성광교회 최정희 목사	순복음기쁨과기쁨교회 이명순 목사	대화순복음교회 안선자 목사
서울중부지교회 지부장	서울중앙지교회 지부장	경기지교회 지부장	경기중앙지교회 지부장	경기남지교회 지부장	경기북지교회 지부장	일산지교회 지부장	김포지교회 지부장	대전지교회 지부장	충북지교회 지부장	충남지교회 지부장	청주지교회 지부장
시립과평화교회 홍현자 목사	예수왕교회 정애스더 목사	온누리순복음교회 최금자 목사	행복한순복음교회 김정순 목사	시냇가예신나무교회 표현자 목사	홍성현성교회 서석자 목사	순복음평안교회 실수자 목사	임마누엘교회 이정애 목사	목자교회 김현시바 목사	대성산기도원 임연일 목사	솔로몬순복음교회 권옥자 목사	행복한순복음교회 김문자 목사
경남지교회 지부장	영남동지교회 지부장	부산지교회 지부장	부산동지교회 지부장	전북지교회 지부장	광주지교회 지부장	호남지교회 지부장	인천지교회 지부장	은진지교회 지부장			
동명순복음교회 김덕숙 목사	순복음예배교회 이순애 목사	하늘소망교회 김경옥 목사	순복음복있는교회 황현선 목사	순복음우리교회 이화숙 목사	순복음김교회 황희숙 목사	순복음중앙교회 정복례 목사	순복음성기교회 신은혜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심연숙 전도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전국여교역자국

국장 한순남 목사